예술인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전북문화관광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회원 대상 2차 사업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21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2차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의료비(종합검진) 지원 △특례보증 지원 △최초 전시 지원 프로젝트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심리상담·치료 지원이며, 그 밖에 NCAS 시스템 사용 및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안내 등이 있다.

현재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접수 행정 대행 서비스를 직접 받아 볼 수도 있다.

지난 1차 운영 시에는 순창군립도서관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재단 사업 안내 및 예술활동증명 행정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는 익산시 그라포스 사진교육원에서 이뤄졌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회원 23명이 참석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박헌재 익산지부장은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를 통해 재단 사업 안내 및 예술활동증명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 및 행정 대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1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 참여를 원하는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은 이메일(jb__7447@hanmail.net) 신청 또는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여름방학 박물관 밤나들이 떠나요"

백제왕궁박물관서 8월 19일 밤夜 정원 박博캉스 진행

익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 - 밤夜 정원 박博캉스'를 다음 달 19일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는 가족 단위로 즐기는 오락형 체험프로그램으로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낮시간을 피해 오후 7시부터 진행하며 △박물관 가족 공동체 놀이 △우리 가족 백제정원 꾸미기 △백제왕궁 가든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박물관 가족 공동체놀이는 가족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 시키고, 우리 가족 백제정원 꾸미기는 참여 가족만의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 박물관 광장에 약 한달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체험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왕궁의 서가에서는 백제왕궁 가든쇼(작은 음악회)를 열어 행사에 참여한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중학생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문자(010-6245-6816)로 접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박물관이 시민의 휴식처이자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친환경 세정제 만들기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와 4시 세미나실에서 천연공예 '친환경 세정제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해 친환경 수공예 세정제(바디워시)를 만들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했다.

이 행사는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이론으로는 세정에 도움을 주는 '계면활성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 화학성분이 아닌 동·식물의 기름으로 만든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이로움에 대해서도 배운다. 이어 실습에서는 친환경 계면활성제를 이용해 천연 바디워시를 제작하고,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및 보관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천연공예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환경과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천연 유래 재료들을 사용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세정제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어린이 합창단원 8월 6일까지 모집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은 하반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합창단'을 기획하고 함께할 도내 초등학생 합창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6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5~20명이다. 대상은 도내 초등학생 이상인 자로 노래에 소질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합창단원은 모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1명당 3~5분의 개별면접(지정곡 부르기 등)을 거쳐 선발된다.

선발 결과는 8월 21일 발표할 계획이며,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개별적으로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합창단은 9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수업이 진행된다.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24년에는 도내 합창 대회 참여 등을 목표로 정규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어린이 한지창의교육 '한지탐구지소'

전주천년한지관, 여름방학 맞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운영

전주천년한지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지창의교육 '한지탐구지소(紙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지, 생각해보기 △한지, 만들어보기 △한지, 툐아보기 △한지, 창작하기 등 4회 과정으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한지탐구활동이다.

이에 따르면 평소에 접하기 힘든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연구시설을 통해 한지와 양지의 물성 비교 시간을 갖는 등 산업화 된 한지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등 아이들과 자유롭게 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전통한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외에도 닥나무에서 한지가 되기까지의 소재(닥나무, 닥피 등)를 만져보고 느껴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의 '전주한지'를 소개하는 부분에 전주한지로 제작한 한지교과서를 보급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전주천년한지관은 전통한지의 계승 외에도 한지를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꿈나무들이 전주천년한지관을 편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한지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